

땅 한평 사기 '1250인, 불일행자'를 모십니다



-----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매화제에서 바라본 조계총림 송광사 포교당 부지(점선 부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조계총림 포교도량 건립불사를 시작합니다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는 지난 1월 26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내에 있는 종교용지를 구입하기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송광사는 종교용지 구입과 승보종찰 전법도량 건립을 위해 땅 한평 사기 '1250인, 불일행자'를 결성하는 불사를 펼칩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16개 정부기관과 주민 등 5만여명이 상주하는 혁신도시입니다.

이곳에 향후 천년을 이어갈 전법중심도량을 건립하는 '1250인, 불일행자'로 동참하시기를 청합니다.

-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무상 합장

〈땅 한 평 사기 1250인, 불일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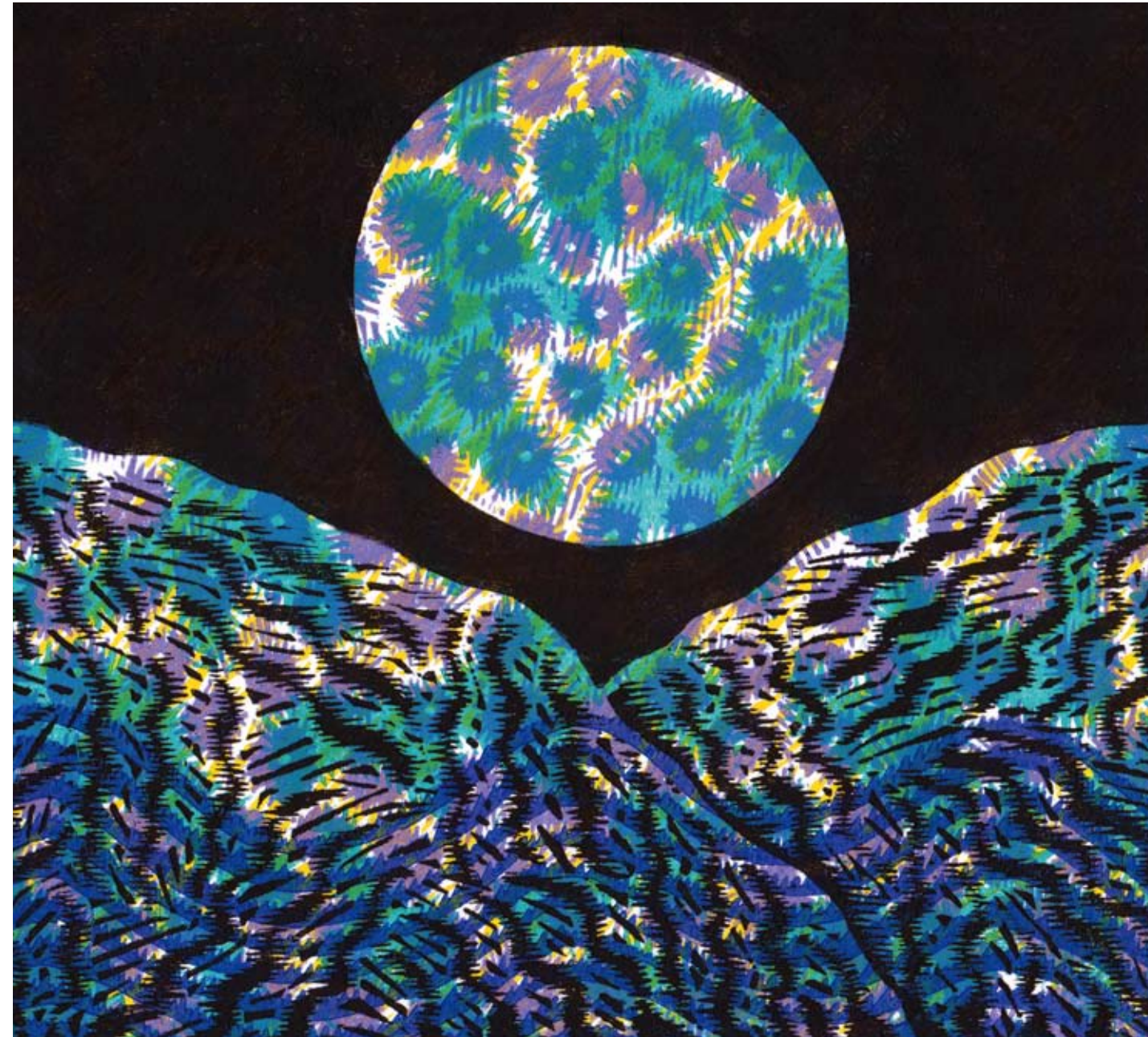
동참시주 | 땅 한 평 210만원

동참 시주자는 송광사에서 매월 1회씩 진행되는 불일아카데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빛가람 조계총림 포교당에 시주자 이름을 새겨 감사를 표현합니다.

※불일아카데미는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1박 2일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로 예불, 참선 등 정진과 총림내 큰 스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강좌 및 차담으로 이뤄집니다.

계좌 | 국민은행 783601-01-481663 (예금주: 송광사)
우체국 501676-01-002408 (예금주: 송광사)

접수 | 기도접수처 061. 755-5306



마음자리



遠離衆生相 원리중생상
具足大悲心 구족대비심

중생이라는 관념을 멀리 여의고
대자비심을 두루 갖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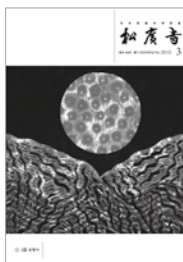
승 보 종 찰 조 계 총 립

松 廣 寺

송 광 사

통권 제168호 2015년 3월호

주장자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자	2
목우현에서	복福, 복덕福德	4
특집	스님들에게 직접 배우는 불교, 재밌어요!	6
명상수행 에세이	우울증과 알아차림 명상(1)	12
송광사의 어제와 오늘		15
보림의 숲	유치찬란한 봄이 들어서길	16
땅이름과 불교이야기	스님의 가사가 떨어져 생긴 가사군도	18
법성료	겉모습에 속지 말라	20
명상카툰		25
성보문화재를 찾아서	무등산 규봉암	26
화보		28
산문 밖 정토세상	공중전화 카드	30
몽골불교미술 이야기	왕자로 태어나 승려가 되었던 위대한 미술가 자나바자	32
동화가 있는 서제	차이와 차별	34
송광사 산책	진여문	37
고향수	행복은 한 템포 느리게 찾아온다	38
문화소식	출판	40
포커스	임란 이후 송광사 중창불사 가마터 확인	42
송광사 소식		44
역사소설 효봉	3. 신학문의 길	49
불사동참		56



표지 봄이오는 소리
강행복_ 관화가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자

범일 보성 梵日 菩成 |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노방거사가 묻기를, ‘불여만법不與萬法으로 위여자수爲侶者誰오. 모든 만법으로부터 착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마조스님 왈, ‘일구진서강수一口盡西江水하라. 한 입으로 저 서강수를 들이켜 마셔야지 알 수 있다.’

● 조주스님께서 80세 노령에 주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 자시에 마음경계가 잠시라도 그칠 때가 있었더냐. 생각하니 천하의 출가인 중에 나 같은 주지가 몇이나 있을까? 흠 자리 침상에 헤진 갈대 돛자리, 해묵은 느릅나무 목침에 덮개는 아예 없네. 불전에는 안식향을 사르지 못해 세속에서 오분향 냄새만 난다.’

한번은 고을 원님이 참방 왔을 때 조주스님이 빠져덕거리며 흔들리는 침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스님! 침상을 하나 해드리지요.” 하니, “걱정마시고 백성일이나 잘 보세요.” 하셨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 생기는 대로 지내야겠다는 어른의 청빈한 자취를 보며, 오늘날 우리들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과 같이 좋은 조건에서 공부하며 조금만 더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모두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각각의 중생들이 망각한 것을 되찾는 방법을 일러 주신 것이지 새로운 법을 일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타 종교처럼 어떠한 이상을 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력하여 여기에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정허스님께서는 시퍼런 칼 하나 들고 정진실에 들어가서 일대사를 다해 마쳤다고 합니다. 어영부영하다가는 허송세월만 하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좋은 조건에서 너무 지나치게 입고 먹으며 허송세월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다그치게 정진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오줌퐁을 싸더라도 한바탕 지어주세요.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삼타三打 후 좌하座下

복福, 복덕福德

무상 無想 |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복은 불에도 타지 않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에도 젖지 않으며, 도둑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사나운 벼락에도 부서지지 않으며, 창고에 두고 지키지 않아도 줄지 않느니라. <출요경>

불교를 일러 흔히 깨달음의 종교, 마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경전 곳곳에서 복을 강조합니다.

법회에 앞서 찬탄하는 삼귀의도 ‘귀의불 양족존歸依佛 兩足尊’으로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모두 구족하신 분으로 잘 따르고 실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부처님은 시종일관 삶을 복되게 만들기 위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교는 복 짓는 길을 알려주는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福과 복덕福德의 차이입니다.

복은 좋은 일을 하면 인과법에 의해 다음에 반드시 그 열매인 선업의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유루복有漏福으로 인연이 다하면 그 복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모아 물을 받을 때 아무리 단단하게 손을 모아도 물은 손가락 사이로 새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유루입니다.

복덕은 조금 다릅니다. 복덕은 복이 마르지 않는 무루복無漏福으로 ‘영혼을 살찌우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무루복인 복덕, 즉 공덕입니다.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든 모든 일마다 이렇게 회향발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옵건대 지금 님은 이 공덕(복덕)을 널리 일체중생에게 돌리어 나와 더불어 일체중생이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도록 하옵소서.’

이같이 불자들의 삶은 늘상 복덕을 쌓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복덕은 불법의 참된 도리를 각자의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자리를 깨닫고 지혜로 일체중생에게 진실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향하는 것이 진실된 복덕입니다.

행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복 짓는 일을 그쳐서는 안됩니다. 열심히 복을 지어 그 과보를 누리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복업에 만족하고는 그 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욕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내 복 창고가 줄었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복을 힘써 지어야 할 것입니다. 복덕을 구족하셨다고 일컬어지는 부처님도 복 짓는 일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봄입니다.

금년 봄에는 복덕이란 씨앗을 뿌려 봅시다.

스님들에게 직접 배우는 불교, 재밌어요!

－ 불일불교대학 1기 좌담회

- 일시 : 2015년 2월 6일 • 장소 : 송광사 종무소 지대방 • 사회 : 월간 「송광사」 편집장 중현
- 좌담 : 해광(김연호, 1반 반장), 수연행(양경행, 2반 반장), 관음월(3반 반장), 덕산 (김연호, 회장)

조계총림 송광사 불일불교대학이 오는 3월 27일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80여 명의 학인들이 지난 1년 동안 조계총림 대종스님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깨달음을 향한 정진을 했다. 졸업에 앞서 불일불교대학 1기 학생회 회장단과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 편집자 주

Q

1년 가까이 도반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 동안의 생활이나 추억부터 먼저 이야기 해 볼까요?

덕산

저는 도반들이 불심이 깊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가령, 아무도 하지 않는데 관음전 마루 걸레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사전에서 봉사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특히 후원에서 도반님들이 말 없이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관음월

청량각에서부터 진입로 벤치를 항상 닦으시는 보살님도 계세요. 저는 소임인 줄 알고 “보살님, 저희 차례는 언제가요?”라고 여쭙볼 정도로 한번도 빠지지 않고 하십니다. 당신이 직접 검은 봉지를 챙겨와서 그 봉지에 쓰레기를 넣어서 다시 가져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송광사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의 원력으로 꾸준히 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중현스님

개별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앞장서서 만드는 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일불교대학 학인들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Q

불교대학이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요?

관음월

수업 끝나고 스님 모시고 차 한 잔 하면서 말씀 나누면 정감 있고 좋잖아요. 이런 자리가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중현스님

그런 것을 절집에서는 소참법문이라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마련하기보다는 그날 분위기를 봐서 스님께 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광

사시에불을 참석하면 순서가 서툴러서 계속 눈치보고 옆 사람을 따라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일정시간을 할애해서 예불하는 법을 익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불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불편하고 망설여져서 참석을 안하게 되더라고요. 하나 더 바란다면, 우리가 그래도 1기인데 2기들이 들어오면 자질구레하지만 필요한 일들을 1기들이 먼저 시범도 보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뭐 해줄게 없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특별교육을 받아서 말이죠.

관음월

말씀대로 작은 것까지는 스님들께서 일일이 가르쳐주실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재가불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불교대학생들 중에서도 의식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예불 템포가 늦어서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은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예불에서 ‘지심귀명례’ 할 때 남들은 고개 들었는데 나는 옆에서 눈

치 보면서 일어난 적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숙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수연행

개별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앞장서서 만드는 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광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친해지는 이유가 점심시간에 밥도 같이 먹고 쉬는 시간에 싸움도 하고, 그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수업하는 날에 일찍 와서 사시예불도 참석하고 점심공양 하고나서 잡담도 하고 어울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서로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관음월

그래서 일대일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나오실 분들인데 전체공지를 올리면 댓글이 안 달려요. 누가 한 명 달면 그 사람과 친한 사람만 다는거예요. 전체적인 소통이 안 되고 아는 사람 몇 명만 모여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듯한 분위기가 드는 거예요.

중현스님

불교대학을 기획할 당시에는 불교대학에 다닐 정도면 불자니까 당연히 사시예불 참석하고 공양하고 그 사이에 잠깐 쉬었다가 수업을 하면 되니까 1시쯤 시작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되지 않는군요.

관음월

교무스님께서 출석체크를 하려고 하면 자리가 비어 있어요. ‘오늘은 적게 오려나’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데, 수업 시작할 때 쯤 되면 들어오고, 수업 중간에 들어오면서 자리가 꽉 차는 거예요. 결석은 거의 없어요.

수연행

저는 일이 있어서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1시에 하는 것이 제게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혜광

수연행 보살님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전에 서예를 하고 10시 반에 끝나면 부랴부랴 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대학 오는 날에는 아예 다른 곳을 못 가게 하루를 비워놓는 건 어떨까 싶어요.

관음월

다송원 가서 차도 마시고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암자에 가기도 하고 스님도 뵙고 하면 좋은데, 다들 수업 끝나면 가기 바쁘니까 멀리 사는 제가 제일 한가하더라고요.

수연행

불교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순천 같은 경우는 버스비를 내더라도 버스를 운행하면 좋겠습니다. 버스가 있으면 불교대학에 다닐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혜광

관음월

수연행

덕산

Q

생활하시면서 생각하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조금 더 발전시켜서 실제로 불교대학을 다니시면서 송광사 불일불교대학만의 장점, 자랑거리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음월

현묵스님, 현봉스님, 고경스님 같은 분들이 19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계셔서 저희들을 지도해주시니 송광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가장 큰 행복이죠.

중현스님

송광사는 스님들이 크게 변한 것도 없고 수련법회 프로그램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워낙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다 보니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이 요새는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송광사가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광

제가 부산 쪽을 종종 가는데 상당히 불교색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광사 불교대학을 다닌다고 말하면 토달지 않고 바로 인정해줍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 가는 게 있어서 좋습니다.

수연행

송광사 불교대학에 다닌다고 하면 다들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스님들도.

관음월

제가 일산에 살아서 근처에 있는 절에 다니는데 정혜사 다니시는 분들이 저와 오래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불교대학에 다닌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가끔씩 제가 사는 곳에 와서 커피숍에서 만납니다. 강의 중에 송광사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면 스님들께 일일이 여쭙보기 힘들니 제게 물어보는 거지요. 이게 다 제가 불교대학을 다닌 덕이지요. 이 분들은 이번 여름수련법회가 열리면 꼭 참가하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절 근처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신도였다면 이제는 굳이 절에 오질 않아도 신도인 거예요.

수연행

요새는 외국에서도 오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송광사에서 맺었던 인연이 자랑거리인 거예요. 글을 읽어보면 송광사 이야기, 송광사 스님 이야기는 꼭 들어가더라고요.

불일학당을 졸업하면서 마지막 템플스테이 참가할 때 송광사 새벽예불을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스님들 다 나오셔서 하나도 안 틀리고 맞춰서 예불을 하시는게 놀랍고 저도 모르게 불심이 우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와서 새벽예불에 참석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Q

앞으로 졸업을 하고 졸업생으로서 어떻게 활동하겠다. 나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덕산

이번에 저희들이 80명 중에서 33명이 포교사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을 회향하는 게 가장 큰 공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두들 전원합격해서 송광사가 승보종찰이라는 명예를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Q

끝으로 불일 불교대학을 주변에 권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덕산

제가 보기에는 송광사 불일 불교대학은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강사진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심이나 생활이 남들이 봤을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집사람이 봤을 때 은연중에 제가 화를 많이 내는 데요.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은연중에 집에도, 주변 친지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관음월

송광사 하면 자긍심이 절로 생기기 때문에 송광사 불교대학을 주저 없이 선택하지 않나 생각해요. 복권되길 빌지 말고 복권을 사라고 하잖아요. 안사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우선 클릭하고, 가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광사 불교대학은 믿고 선택해도 됩니다. 자신 있게 권유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중현스님

스님들이 사실은 한가합니다. 여러분들이 노크만 하면 언제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고 졸업생으로써 후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찾아가길 바랍니다. 송광사 불일불교대학 학생이라는 자부심이 후배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기 송광사 불일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승보종찰 송광사에서는 불교의 세계에 입문하는 불자들을 위하여 불일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른 수행과 교육을 통하여 불자다운 삶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불국토를 열어 갈 인연을 맺어 보고자 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기원합니다.

입학식 4월 17일(1년 과정)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주지 무상스님
가까이에서 본 부처님 말씀, 불교개론 - 덕조스님
참나를 찾아서, 참선이란 - 현묵스님
불교의 정수, 반야심경 - 원순스님
수행의 근본, 천수경 - 현봉스님
성보문화재의 이해 - 고경스님
부처님 생애 - 승석스님
불자의 신앙과 수행, 계율이 필요한 이유 - 대경스님
불교 첫걸음, 초발심자경문 - 일귀스님
수련회 - 각안스님
졸업여행 인도 8대 성지순례 - 주지 무상스님
템플스테이 및 졸업식 - 지정스님



입학금_ 40만원(교재비 및 조끼·가방 별도)
수업일_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송광사 불일학당 5기 신입생 모집

입학식_ 4월 17일(3개월과정)	기초교리 - 석화스님	성보문화재 - 김일동 학예연구실장
입학금_ 10만원	부처님 생애 - 원각스님	성지순례 및 템플스테이 - 지정스님
수업일_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신앙과 계율 - 대경스님	

접수기간_ 2015년 1월 2일 ~ 4월 16일
접수계좌_ 농협 615107-51-021962 (송광사)
접 수_ rabbit0520@hanmail.net
문 의_ 송광사 종무소 061-755-0108 교무과장

우울증과 알아차림 명상 (1)

인경 印鏡 | 목우선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오늘날 우울증은 매우 보편적인 마음현상이다. 괜히 슬프고 의욕이 없으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생각이 자주 일어난다면 우울증의 초기 증상으로 의심해볼 만하다. 이것이 더욱 심해지면 해오던 일들을 갑자기 포기하면서, 방문을 닫고 밖에 나가지 않고 대인관계를 기피하며, 두통이나 위경련과 같은 신체적인 징후가 함께 한다. 그러다가 만성적인 피곤함과 함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든다. 이것이 지속이 되면 ‘이렇게 살 바에는 여기서 끝내자’는 극단적인 생각이 종종 찾아오곤 한다.

우리에게 우울증의 심각성을 알려준 계기는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사람들(정치인, 연예인, 기업가)의 자살이었다. 겉으로는 돌발적인 사건과 함께 자살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부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우울증이 힘든 것은 완치되었다곤 해도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면 7-80%가 대부분 재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우울증은 오늘날 ‘정신적 감기’라고 해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보편적인 정서이다. ‘날 건들지 마라. 지금 나 우울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한 번씩은 우울한 기분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울증의 원인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 1970년대 이후로 우울증의 치료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 ‘인지치료’이다. 인지치료는 우울증의 원인을 ‘자동화된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rumination)’이라고



본다. 그는 혹은 그녀는 자신의 실수나 좋지 않았던 상황을 반복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것은 비유하면, 자신의 머리를 ‘망치질’ 하는 것이며, 망치 소가 밤 새워서 ‘되새김질’ 하는 것과 같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스스로 비극적 상황으로 몰고 간다. 이를테면 ‘그는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내가 하는 일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야.’ 우울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과 세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자꾸 파국적 의미를 재생산해 낸다.

이럴 때, 인지치료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꾸는 변화 전략을 선택한다. 우울정서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기에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발생된 정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전략은 그때의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를 찾게 하여, 부정적인 의미부여가 객관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곧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준다. 두 번째는 성공한 사례를 보게 한다. 실패한 그곳에서도 긍정적이고 보람 있는 교훈을 찾게 한다. 그래

‘그는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내가 하는 일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야.’ 우울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과 세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자꾸 파국적 의미를 재생산해 낸다

●

서 세 번째 전략은 직면한 사태를 현미경으로 보지 말고, 망원경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나무보다는 인생이란 숲 전체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고착된 생각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만든다.

인지행동 치료자들은 이렇게 자동적 생각과 그 밑바닥의 신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면 그의 삶이 바뀐다고 믿는다. 사실 이런 전략은 임상뿐만 아니라, 교육과 경영의 일선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임이 증명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오래되고 익숙한 ‘신념’을 바꾸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는 태도는 잘못하면 커다란 저항과 역효과만 불러일으킨다. 아마도 아이를 키워본 학부모님들은 이 점을 공감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우울증에 대한 인지치료는 약물치료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만 여전히 재발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상담실에서는 호전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일상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되돌아가곤 한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전략에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 ‘알아차림’ 명상이다.



인경스님 송광사에서 현호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국대에서 간화선연구로 석.박사학위 취득. 현재 동방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 전공교수 겸, 한국 명상치료학회 회장.



- 건조한 봄을 맞아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속 완용펌프는 박물관 수장고 앞에 진열되어 있다.
- 2014년도 효봉영각 앞에서 진행된 춘계소방훈련. 승주소방서, 송광면 의용소방대원, 마을주민, 사중스님 등 100여 명이 시종 진지하게 임하였다.

유치찬란한 봄이 들어서길

일선 一善 | 보림사 주지

입춘이 지났지만 새벽 도량석은 아직 춥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예불을 마치고 나면 몸과 마음은 돌이 없어 온통 깨어나니 추위는 흔적이 없습니다.

미타전 앞에 매화가지엔 꽃망울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엔 이웃 절에 가서 상큼한 냉이 무침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온몸에 봄기운이 차오르고 향기로 가득 합니다.

입춘은 새해 첫 번째 절기로 봄이 들어선다는 말로써 본다는 말에서 봄이란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본다는 것의 핵심은 눈으로 사람의 관상에서 눈은 9할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육안 천안 법안 혜안 불안의 오안을 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별개가 아니어서 육안인 중생의 눈을 뒤집으면 바로 부처의 눈이 출현하니 일체가 눈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 있는바 모양은 허망하지만 모든 모양에서 모양 아닌 모양인 보는 눈을 본다면 보는 것이 바로 여래라고 했습니다.

한편 밖으로 대상을 따라가지 않고 안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놓치지 않아 보는 눈을 바로 볼 줄 알면 어느덧 모든 생명이 깨어나는 봄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대상과 생각이라는 경계에 보는 눈을 망각해 버리고 차갑고 우울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입춘이란 이러한 기나긴 겨울의 터널에서 벗어나 보는 눈을 깨치면 보는 것이 바로 성품이어서 이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입춘이 지났지만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는 여전하고 바람은 쉬었지만



송광사 수선사 앞에 핀 목련

아직 작은 파도는 여전하듯이 깨치고 나서도 남은 업력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터는 사람으로 태어난 인연이 금생에 일대사를 요달하는데 있음을 보았기에 일체처 일체시에 보는 눈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일체 대상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보는 눈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때 순간 포착을 하여 이뤘고 화두로 돌이키면 바로 불지인 봄이 서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보림사 창건 설화에 나오는 매화보살님의 재일이었습니다. 원래 절 앞마당은 아홉 마리 용이 살았던 연못이었는데 금강산 성모천왕의 딸인 매화보살이 매화꽃이 찬란한 이곳을 좋아하여 머무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들이 시끄럽게 하여 방해가 됨으로 창건주이신 원표대사를 청하여 제도해 주면 가람 수호신이 되겠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재일을 맞이하여 봄을 기다리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걸모양만 보지 말고 보는 눈을 본다면 사람마다 부모 형제를 만난 듯 포근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종가집의 맏며느리가 삼대독자 외아들을 기다리듯 유치찬란한 봄이 들어서 서기를 축원합니다.



일선스님 1980년 송광사에서 법흥스님을 은사로 수계.
1987년 법여사에서 비구계 수지 후 10여 년 간 제방선원에서 정진.
중앙승가대 졸업.
거금도 송광암 주지, 금천선원장 역임.
현재 장흥 보림사 주지.

스님의 가사가 떨어져 생긴 가사도, 서해 낙조 일품

이준엽 | 호남불교문화원 실장



남도의 서남해안 끝자리에 자리한 ‘보배의 섬’ 진도에서도 북서쪽으로 약 21km 쯤 떨어진 곳에 가사도가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이다.

가사도라는 지명은 마을 당산堂山의 모습이 부처님 옷과 같다 하여 가사도袈裟島라 한 데서 유래되었다. 가사는 스님들이 장삼 위에 입는 옷으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에 걸쳐입는 법의法衣이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인도는 더운 나라여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직사각형의 긴 천을 몸에 둘둘 말아 걸쳐 몸을 가린다. 그나마 출가 수행자인 스님들은 낡은 옷을 주워 입거나, 시주받은 천을 조각조각 꿰매어 입었다.

인도에서 스님들이 입었던 옷인 가사가 중국 티벳, 우리나라 등 추운 지역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수행자의 표식을 알리는 겉옷 위에 걸쳐입게 되었다. 가사는 종파와 스님의 수행력에 따라 색이 다르고, 꿰맨 형질 천의 숫자도 다르다.

이처럼 스님이 입는 가사가 남도 끝, 섬 마을까지 내려온 데에는 이야기가 하나 내려온다.

세방낙조로 잘 알려진 진도 서쪽 지력산에는 동백사라는 절이 있다. 하루는 이곳에서 수행하던 스님이 해질녘 서쪽하늘에 날아가는 학 떼를 보게 되었다. 붉은 노을을 가로질러가는 학들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스님은 새떼를 따라 지력산으로 날아올랐다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다.

아마 수행력이 부족했던지 학을 따라가지 못하고 바다에 빠졌던 것이다.

그때 학을 놓친 스님의 가사가 바다에 떨어져 가사도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장삼이 떨어진 곳은 장삼도,

바지가 떨어진 곳은 하의도,

윗옷이 떨어진 곳은 상의도,

발가락이 떨어진 데는 발가락 섬,

손가락이 떨어진 데는 손가락 섬,

그리고 심장이 떨어진 곳은 불도佛島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진도 조도면 바다에는 이들 섬들이 남아있는데 가사도리에 있는 섬들을 통틀어서 ‘가사군도’라 부른다.

이처럼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어서인지 가사도에는 ‘살생하면 벌을 받는다’거나, ‘어업은 대량 살생이라 좋지않다’는 관념이 주민들 사이에 내려오고 있다.

실제 가사도 사람이 고기잡이에만 손을 대면 실패했다고 전한다. 가사도 근해는 조기가 풍부한 어장이지만 예전에 가사도민들은 살생하지 않으려고 타지역 어선들에게 고기잡는 것을 맡기고 구경만 했었

다고 한다.

이처럼 가사군도에 딸린 섬들의 지명은 대부분 불교와 관련이 깊다.

불 보살의 자비스런 마음은 보리섬인 교맥도,

신중들이 모여산다는 신도,

예불시간이면 북소리가 울린다는 북송도,

관세음보살이 주석하고 계신다는 우이도 등이 자리해 있어 가사군도는 유일하게 불교로 이루어진 군도이고, 가히 부처님 세상, 정토세계라 하겠다.

이 가운데 불도는 섬의 봉우리 동백나무가 부처님을 닮고, 섬 모양이 목탁의 형상을 하고 있어 부처섬이라고도 한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지만 퇴적암층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치 탑처럼 보여 수많은 불자들이 찾고 있다.

사자도로 불리는 광대도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파도치는 모습이 장관이고 올라가는 길의 바위굴 돌 부처에는 해마다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이면 불자들이 찾아와 공양을 올렸다고 한다.

가사군도의 아름다움은 일찍이 해외에도 잘 알려졌다. 구한말 1816년, 영국해군 바실 홀이라는 대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조도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다. 그 후 영국으로 돌아간 바실홀은 ‘조선 해안 및 류큐 제도 발견 항해기’(한국어판 ‘10일간의 조선항해기’)를 냈다.

이 책에서 바실 홀은 가사군도가 자리한 조도에서의 전망을 ‘세상의 극치’라고 표현하며 감탄해 마지않았다.

바로 극락을 보았던 것이다.

겉모습에 속지 말라

덕조德祖 | 조계총림 송광사 승가대학장

理實見分 第五 여리실견분 제오

須菩提수보리 於意云何어의운하 可以身相가이신상 見如來不견여래부 不也불야 世尊
세존 不可以身相불가이신상 得見如來득견여래 何以故하이고 如來所設身相여래소설신상
卽非身相즉비신상 佛告須菩提불고수보리 凡所有相범소유상 皆是虛妄개시허망 若見諸相
非相약견제상비상 卽見如來즉견여래.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모습으로 여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으로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육신의 모습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여래께서 말씀하신 육신은 곧 육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진실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대승경전의 꽃인 금강경이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 금강경 하면 먼저 사구계四句偈를 떠올린다. 금강경에는 4가지의 사구계가 있는데 첫 번째 사구계가 제오 여리실견분第五 如理實見分에 나오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이 형상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곧 여래를 보게 되리라”이다. 형상이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 집착하지 말고 그 이치를 깨닫고 실답게 보라는 뜻의 여리실견분이다.

어떻게 이치대로 실답게 볼 수 있을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개인의 업식業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반야심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몽상顛倒夢想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전도몽상이란 진리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환상을 진실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전도몽상인가 하면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고통인 것을 행복이라고, 무아인 것을 내가 있다고,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형상에 속지 말고 이치대로 실답게 보라고 말한다. 형상이란 인연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다. 조건이 없어서면 그 물체는 사라진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하다. 그래서 말에 속지 말고 그 뜻을 헤아려야 한다. 존재의 실상을 바로 봐야 한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어떤 일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 그대로, 이치대로 알고 본다면 오해도 없고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그대로 실답게 보지 못하고 이치대로 접근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 제오여리실견분第五如理實見分에서 이치대로, 진리 그대로 실답게 보라고 하는 것이다.

●●● 須菩提수보리 於意云何어의운하 可以身相가이신상 見如來不견여래부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모습으로 여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존자에게 육신의 모습, 곧 신상身相으로 여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라고 묻는 모습이다. 부처님은 삼십이상三十二相, 팔십종호八十種好의 뛰어난 용모를 갖추었다고 하는데 이는 부처님께서 무량겁 동안 보살행을 닦아 생기게 된 길상스런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통해 여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우리들에게 묻는 모습이다.

우리는 법당에 가면 형상화된 불상을 보고 절을 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상호가 좋다 느니 나쁘다느니 말들을 한다. 그것은 바로 형상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불상을 보고 여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은 것이다. 이런 부처님의 상호相好는 범부에게는 다 없는 상이다. 부처님에게만 특별히 있는 상이고, 공덕으로 나타난 상이니 이런 모습으로 여래 곧 부처님을 본다고 할 수 있느냐? 고 부처님께서 수보리존자에게 물으신 것이다.

●●● 不也불야 世尊세존 不可以身相불가이신상 得見如來득견여래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으로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형상으로서 득견, 볼 수가 없음이니 신상身相-몸의 형상으로 어떻게 여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수보리존자는 부처님께 “부처님의 상호가 아무리 길상스럽고 거룩하다 하더라도 육신의 형상으로는 여래를 볼 수 없다”고 말씀 하신다. 여기서 부처님을 여래如來라고 했는데, 여래란 청정한 불성이며, 본래 청정한 마음은 여여如如해서 언제나 오고 감이去來도 없다는 뜻이다. 그 분이 바로 석가여래이다.

●● 何以故하이고 如來所設身相여래소설신상 卽非身相즉비신상

“왜냐하면 육신의 거룩한 모습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여래께서 말씀하신 육신은 곧 육신이 아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何以故 여래께서 말씀하신 육신의 모습如來 所設身相은 곧 육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육신의 형상이 여래일 수 없기 때문이다卽非身相라고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말씀하신다.

우리는 육신을 나라고 착각한다. 나고 죽는 것이 육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육신에 집착하고 본래 주인인 마음 살피는 일에는 등한시 한다. 이런 망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 중생들에게 있어 육체와 정신 중에 어느 것이 참 나인가? 육체는 언젠가는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물질에 불과하다. 근육이나 뼈가 우리 몸뚱이의 주가 되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결국 수분, 지방, 단백질 등의 물질적 요소에 불과하다. 혈액이나 오줌 등을 보더라도 결국 이것은 물질이며 오장육부는 물론 뇌세포까지라도 그것은 물질적 구조에 불과하며 물질은 결국 생명일 수는 없다.

이 몸뚱이는 마음이 없으면 송장이다. 육체를 부리는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은 운전사고 육체는 자동차와 같다고 말한다. 자동차는 마음의 명령에 따라 서라고 하면 서고 가자고 하면 간다. 그리고 자동차가 낡아 폐차시킬 때 운전사까지 폐차 시키지 않는다. 그러하듯이 이 육신은 죽고 없어지지만 마음은 남아서 좋은 업을 익혔다면 좋은 차를 구해탈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새 차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될 것이다. 그러하듯 이 몸뚱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마음인줄 알아야 한다.

●● 佛告須菩提불고수보리 凡所有相범소유상 皆是虛妄개시허망 若見諸相非相약견제상비상 卽見如來즉견여래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진실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이 금강경 계통을 전부 통틀어 반야부般若部라고 하고, 그 부수部數만도 육백부나 되고 경책의 권수로는 이전권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6백부 전체 내용을 압축시킨 것이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란 네 구절이다. 이 사구계四句偈 열여섯 글자 안에 금강경의 핵심은 물론 반야 육백부 전체의 뜻을 모두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반야제일계般若第一偈라고도 한다. 이 계송偈頌의 뜻은 “모양으로 있는 모든 것,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이 모든 형상이 상이 아닌 줄을 직관直觀할 줄 알면 곧 여래를 보는 것이고 마음을 깨친 것이다.”라는 것이다.

무릇 있는바 모양凡所有相이란 현상계現象界를 말하고, 이때에 현상은 모든 생각, 안 보이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리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믿을 수 없는 허망상虛妄相이다. 이것이 다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皆是虛妄.

그러므로 이 육신의 가짜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형상들은 부질없고 참 진실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에서 지혜를 체득하려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상相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된다若見諸相非相.

이렇게 해서 세상사가 무상하고 형상이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알면 여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래는 부처를 가리키는 말이고 마음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니 그제 곧 참나이다. 육신에 집착하지 말라. 이 몸뚱이를 소중히 아끼고 집착하면 나의 불성佛性은 보이지 않는다. 육신이 나라는 상相이 아닌 줄 알면 곧 여래를 발견하리라卽見如來.

이런 이야기가 있다. 금강경의 사구절만 읽어 가지고 성불한 사람도 있고 반야바라밀만 읽어 가지고 신통神通이 나오기도 하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만 외워서 견성見性하기도 한다고 한다. 참선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다라니를 하든지 하나에 전념을 하라는 의미로 일심으로 한다면 여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 諸相非相 卽見如來’의 금강경 사구계를 마음 밖에 두지 말고 마음 안에 두라. 현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속지 말라. 그대가 속았다면 욕심 때문이다. 욕심을 버려라. 모든 현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정신 차려 속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음은 지혜가 충만한 살아있는 부처다.



덕조스님 1983년 송광사로 출가. 1984년 법정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받음. 송광사 강원 졸업. 제월 통광스님으로부터 전강받고 법일 보성스님으로부터 전계받음. 대만 6년 유학 게을학 석사.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장, 이사 및 서울 길상사 주지 역임. 송광사, 운문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 현 송광사 승가대학장.

송광사 16국사 진영을 새롭게 모십니다



송광사는 구석구석 16국사 스님들의 청정한 삶과 치열한 수행정신이 깊이 배어 있는 수행의 도량입니다.
 송광사 사부대중은 그동안 사진으로 대체되었던 16국사 진영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여 다시 국사전에 봉안하는 커다란 원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발원에 기꺼이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제자로서 한량없는 복덕을 짓고, 이 인연공덕으로 다함께 성불도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시주 : 2,000만원

- 대시주자는 시주실에 기재.
대중질大衆秩과 시주질施主秩은 족자 뒷면에 기록.

일반동참 : 1구좌 30만원

- 구좌 당 접수받으며, 1구좌 이상 가능.
- 한 분의 국사 진영에 여러 구좌를 올릴 수 있으며 여러 구좌를 한 분 이상의 국사 진영에 올릴 수도 있음.
- 동참자 명단은 원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복원된 진영에 복장.

계좌

우 체 국 501676-01-002571 (예금주: 송광사)
 국민은행 783601-01-464262 (예금주: 송광사)

회향일

2015년 12월 23일(음. 11.13)
 - 제32주기 구산선사 추모다례일
 • 회향일에 '16국사 진영 봉정식'을 여법하게 진행할 예정.

접수

기도접수처 : 061) 755-5306

16국사의 수행정신을 담아
 승보의 빛나는 도량, 송광사를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배종훈의 생각, 한 조각



제 3화



골짜기마다 부처님 도량, 그 중에 으뜸 수행처

김일동 | 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규봉암은 각가지 모양의 바위들이 솟아 있는 무등산의 주상절리대 사이에 건립되어 있는 암자이다. 창건년대는 문헌상에 나오지 않으나 의상 대사께서 바위틈에서 흐르는 물이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음을 기이하게 여겨 절을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신라말 도선국사道詵國師께서 규봉암 주변 은신대에 앉아 조계산의 산세를 살펴 송광사의 절터를 잡았다는 전설도 있다. 고려말 보조국사 普照國師 지눌知訥스님과 진각국사眞覺國師 慧謙스님께서 수도하여 득도했다고 한다. 또한 나옹혜근懶翁惠勤스님 또한 이곳에서 수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조선후기 폐사되어 있던 사찰을 1729년 연경演瓊스님께서 3년동안 불사하여 사찰을 중건하였다. 근대에는 한국 전쟁으로 10여년 동안 방치되어 폐사 되었다가 1957년에 중건되었고, 현재는 1995년부터 중건되어 참된 수행도량으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뿐 아니라 풍광이 아름다워 많은 지방관리들이 방문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남겨 놓기도 하였다.



규봉암 관음전과 관음보살좌상
관음전은 팔작지붕에 정면, 측면 각각3칸 건물로 1996년 조성한 관음보살상과 후불탱이 봉안되어 있다.



주상절리 사이에 자리한 규봉암 관음전



석불암 마애불과 지공너덜 및 석실

지공너덜과 석불암 마애불
규봉암에서 장불재 방향으로 지공스님의 좌선수행하였다는 석실과 지공너덜을 지나면 석불암 마애불을 만나 볼 수 있다. 석불암 마애불은 1933년에 담양읍에 사는 국씨 일가에 의해 조성되었다. 연화대좌 위에 부처님께서 앉아계시는 모습으로, 두광과 신광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어있다. 상호에서 육계는 크지 않고 둥글며, 반원형의 정상계주와 중앙계주가 표현되어 있고 코와 귀가 크게 표현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조각되어 있고 선각과 부조가 조화롭게 되어있어 인자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석불암은 전면 석축이 붕괴되어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참배객과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을미년 정초를 맞아 조계총림 송광사에는
삼보사찰순례에 나선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 응진전에서 기도 중인 스님
2. 범종각에서 저녁예불에 동참한 참배객들
3. 4. 산신각에 오르는 불자들
5. 대웅보전 참배
6. 상사당 큰스님 건안을 기원하는 불자

공중전화 카드

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화를 하라고
내 손에 꼭 쥐여준 너의 전화카드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고맙다는 말 그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섰네.
- 꽃다지 노래 '전화카드 한 장'

20여 년 전 대학 다닐 때 자주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랫말이 예쁘고 음높이도 낮아 쉽게 부를 수 있어서 술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불렀습니다.

‘삐삐’가 유행이던 시절이었으니 5천원짜리 전화카드는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로서는 주기도 좋고 받아도 기분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이젠 책상 서랍에서조차 찾기 어려운 ‘퇴물’이 돼 버렸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에 넣고 신호음을 기다리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누군가의 체온이 따뜻하게 남아 있는 수화기를 들고 그리운 사람의 목소리를 들곤 했던 공중전화기도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공중전화 박스는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을 막기 좋았고, 한여름 소나기도 잠시 피해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비어 있는 공중전화 박스를 보면 무작정 전화를 걸어보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 친절하게 동전을 남기고 가면 황재라도 한 듯 행복했습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할 때도 꼭 전화카드를 한 두 장씩 샀습니다.

동전 전화로 시외전화를 걸다 보면 언제 동전이 떨어질 줄 몰라 전전공공해야 했

지만, 전화카드는 느긋하게 통화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간혹 신용카드와 헷갈려 술값을 낼 때 전화카드를 내 당황하기도 했지만, 전화카드는 그리운 가족과 친구를 연결해 주는 고마운 물건이었습니다.

기사를 검색해보니 17년간 152개국의 공중전화 카드를 모은 사람도 있었네요. 그는 우표와 마찬가지로 전화카드가 동식물, 곤충, 명화, 인물, 스포츠, 디즈니, 퍼즐, 누드, 선박, 비행기, 학교, 현혈 등 각종 테마별 수집이 가능하고 플라스틱 재질이라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점이 좋아 수집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도 7년 전에 쓰여진 것이니 그 동안 얼마나 더 모았을지 궁금합니다.

작고 사소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때는 흔하디흔한 물건으로 쉽게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들이 추억 속에서 보석처럼 빛날 때가 있습니다.

물건이 귀하고 구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추억이 소중하기 때문이겠지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작고 사소한 물건이 있다면 보물처럼 간직해 보세요.

혹시 알아요? 나중에 정말 보물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왕자로 태어나 승려가 되었던 위대한 미술가 자나바자

김선정 | 몽골전통미술원 부원장



윤드르게젠 자나바자 라마도 40 x 31 cm 무명 캔버스에 몽골전통 불화기법

라마도는 스승을 신앙의 대상으로 그려 모시는 몽골불화의 가장 중요한 양식이다. 밀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에게 전해주시 라마가 부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태양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도 톨보기 같은 스승이 없으면 태양의 불을 내가 사용할 수 없다고 비유한다. 밀불교의 모든 의식에서는 3보와 더불어 스승인 라마에게 먼저 귀의한다.



자나바자 作 금동불 보생불寶生佛 톡스에르덴(동)
Ratna-sambhava

Choijing Lama Temple Museum in Mongolia 소장

사진발췌 : 〈MONGOLIAN SCULPTURE〉 Author :
N.Tsultem ,Photo : T. D. Sugyama, State Publishing
House, Ulaanbaatar.



국기에 새겨진 몽골의 국장인 소욤보의 첫문자

자나바자는 불교의 8만4천 지혜를 이 한 문자에 응축시켰다고 한다.

징기스칸에 이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또 하나의 몽골영웅

자나바자는 1635년에 징기스칸의 황금가문에서 압후태쎌 칸의 증손자로 태어났다. 출가하여 승려가 된 왕자는 미술가이고 시인이고 음악가였다. 철학, 논리학, 수사학, 의학, 천문, 지리, 역학 등 모든 밀교학문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몽골에서는 자나바자를 예술가나 학자가 아닌 ‘윤드르게젠 - 높으신 스승’으로 기록하고 불러왔다.

고난도의 수행으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탄트라 마스터가 제작한 일부 금동불들은 가끔 신비한 초상현상을 나타낸다. 입을 열어 말을 하고 눈동자나 손과 발 등이 움직인다는 수많은 목격담이 전해진다. 간단사에 모셔진 ‘타라’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여러 스님들이 함께 목격했다고 한다. 또 오르곤 산 山 툽궁사 寺에는 머리 부분에 사람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신비한 토불 土佛이 있다. 이 토불은 자나바자가 청나라 강희대제의 부름을 받고 살아서는 다시 올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되자,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해 만들었다. 자바자나는 점안을 해주고 떠나며 “내가 보고 싶거든 이 토불에 인사를 하면 나를 만난 것과 같다”고 했다. 자나바자가 청나라에서 암살 당한 후에 토불에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 신비한 토불은 지난 2008년에 몽골 국가보물로 지정되었다.

신비한 이적을 듣지 못한 외국인들도 ‘Zanabazar Fine Art Museum’과 ‘Choijing Lama Temple Museum’에 전시된 금동 만다라 5불을 대하는 순간 영혼이 흔들리는 전율을 느꼈다거나 눈물을 흘렸다는 경험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 자나바자의 금동불상들은 종교적인 신앙물로서가 아닌 순수한 미술품으로서도 세계

인을 깊게 감동시키는 것이다. (본지 1월호에 게재된 화보 자나바자 금동불 ‘악쇼바’ 참조)

티베트 유학에서 돌아온 왕자는 티베트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불상과 불화들을 제작하면서 몽골의 각처에 절을 세웠다. 당시의 관행인 티베트 사원의 건축 양식을 따르지 않고 몽골의 전통 가옥재인 펠트로 법당을 만들었다. 조립식 펠트 법당은 몽골의 기후와 자연 조건에 잘 어울리는 아름답고 독특한 몽골사원의 건축양식이 되었다. 승려들의 복식도 몽골의 풍토에 맞게 다시 디자인했다. 불교의 지혜를 담은 시와 노래들을 만들어 백성들이 부르게 했고 불교적인 인사법과 축제와 놀이, 생노병사를 통과하는 의식과 풍습을 만들어서 퍼뜨렸다.

밀교의학에도 통달했던 왕자는 고통없이 양을 도살하는 방법도 가르쳤다. 지금도 몽골 유목민의 양들은 평화롭게 잠들 듯이 죽는다.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 티베트어와 산스크리트를 오차 없이 가장 정확하게 몽골어로 음사할 수 있는 ‘소욤보’라는 문자도 창제하였다. 불교의 8만 4천 지혜가 응축된 소욤보의 첫 문자는 민족을 말살하던 70 년의 공산통치를 겪고도 죽지 않는 몽골의 혼을 상징하듯 국장 國章으로 살아남아 현재까지 몽골의 국기에 사용되고 있다.

인류의 지성이 좀 더 깨어나서 자나바자가 확장시키고 진화시킨 인간의 정신능력과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면 자나바자도 징기스칸처럼 인류의 위대한 영웅으로 알아보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김선정 몽골전통미술원 부원장
전 몽골불교미술대학 교수, 홍익대학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무형문화재 48호 이만봉 스님께 한국탱화 수업, 상계예시 스님께 티베트 불화 수업, 계서 샘텐 스님께 입체 만다라 수업

차이와 차별

이일야 | 전북불교대학 연구처장

이호석 창작동화

〈날 지켜줘, 그림자야〉

하얀 흑인



얼마 전 ‘하얀 흑인’에 관한 끔찍한 기사를 접했다. 일명 알비노(Albino)라 불리는 백색증 환자들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아프리카에는 알비노 환자의 팔이나 다리 등 신체의 일부를 지니고 있으면 부와 권력, 행운이 따른다는 미신이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그들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해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기사는 한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달려든 어른들에 의해 팔이 잘려나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어린 소년은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며 도살당하는 염소와 같았다고 말했다.

백색증은 멜라닌 세포를 합성하지 못해 생기는 선천성 희귀질환이다. 멜라닌은 피부색을 결정하는 색소로 알려져 있다. 멜라닌이 많으면 피부색이 검은 쪽에 가깝고 반대로 멜라닌이 적으면 피부가 백색에 가깝게 된다. 이 질환을 앓는 이들은 검은 피부의 아프리카 사람들과는 달리 온몸이 하얗게 변하는 증세를 보인다. 그들은 피부색이 하얗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백인들에게 온갖 핍박과 수난을 당해온 아프리카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자신들의 이웃을 해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여기 그들의 슬프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동화가 있다. ‘희망TV SBS’를 연출했던 이호석 PD의 창작 동화 〈날 지켜줘, 그림

자야〉가 그것이다.

하늘나라 그림자 마을에 살고 있는 아기 그림자는 아침 해가 뜨면 땅으로 내려오고 저녁이 되면 다시 마을로 돌아간다. 아기는 마티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늘 붙어 다녔는데, 웬일인지 다른 친구들은 마티를 몹시도 싫어했다. 그래서 마티가 지나가면 친구들은 놀려대곤 했다.

“저기 하얀 괴물 마티다! 괴물이에요~ 괴물이에요~”

그랬다. 마티는 아파서 다른 친구들과 달리 피부가 하얀 색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늘 외톨이였다. 어느 날 그림자는 하얀 몽게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왔는데, 마티가 보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봐도 마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옆에 있던 나무가 마티는 저 동굴 안에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림자는 나무가 일러준 동굴로 들어갔다. 그런데 어두운 동굴에서 마티는 혼자서 울고 있었다. 동굴에서 나가면 하얀 피부의 아이들만 잡아가는 괴물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자는 그림자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친구들도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이란다.

이때 갑자기 괴물이 동굴로 쳐들어와 마티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마티와 그림자는 무서워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별똥별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그림자 마을에 있는 엄마의 목소리를 전해 주었다.

“아가야, 너는 용기 있는 아이란다. 마티를 지켜주렴.”

엄마의 목소리에 힘이 난 그림자는 괴물을 향해 큰 소리로 “넌 누구냐?”라고 외치면서 동굴 밖으로 나왔다. 그때 달님이 그림자를 환하게 비춰주자 아기는 괴물보다 훨씬 큰 그림자로 변해있었다. 괴물은 자기보다 훨씬 힘센 도깨비인 줄 알고 목숨

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멀리 도망갔다. 도망치는 괴물을 향해 아기 그림자는 큰 소리로 외쳤다.

“또 마티를 괴롭히면 혼쫓을 내줄 테다!”

마티는 웃으면서 그림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마티의 웃는 모습을 보니 그림자도 마음이 놓였다. 잠시 후 괴물을 피해 숨어있던 친구들이 나타나 마티에게 말했다.

“마티야, 미안해. 널 도와주지 못해서. 그동안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려서 정말 미안해.”

친구들은 마티에게 손을 건넸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달님이 웃으면서 말했다.

“애들아, 지금 달빛에 비친 그림자를 보렴. 모두 똑같은 색깔이지? 피부색이 달라도 그림자 색깔은 다 똑같듯이 너희들은 모두 똑같은 친구란다.”

그림자는 마티와 친구들을 껴안았다. 그리고 달빛 아래 모두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었다. 이제 마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제는 곁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차별 없는 세상



동화 〈날 지켜줘, 그림자야〉는 짧은 이야기지만 깊은 울림을 가져다주었다. 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를 감내해야 했던 마티의 이야기에 공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늦게나마 마티에게 미안하다며 따뜻하게 손을 건넸던 친구들의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왔다. 역시 어린 아이들의 솔직함은 위대하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친구의 관계를 회복했으니 말이다. 잘못을 알면서도 핑계 대느라 분주한 어른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내게 작은 습관이 하나 생겼다. 가까운 벗들이 다르다는 의미를 ‘틀



리다’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지적하곤 했다.

“다르다니까.”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은 범주와 의미가 같지 않다. 흑인과 백인, 사과와 배, 유럽의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틀리다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마치 사과 맛이 파랗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맛이라는 범주에는 시거나 달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색깔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파랗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를 흔히 범주의 오류category mistake라고 한다. 다름과 틀림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혹여 우리들 무의식 속에 나와 다르면 틀리다는 관념이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나와 다른 이를 차별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아닐까? 차이와 차별은 분명 범주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은 흑인을 차별했으며, 유럽 문명은 아시아 문명을 미개하다며 차별했다. 어디 그뿐인가? 기독교는 이슬람교를 차별했으며, 한국 사회는 동남아에서 온 다문화 가족들을 차별했으며, 자본을 가진 이들은 노동자들의 존엄마저 짓밟는 차별을 감행하였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지만, 이는 결국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의 극치일 뿐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해야 하는 논리적이고 철학적 근거는 없다. 백인과 흑인, 사용자와 노동자는 다른 것이며 지구가 평평하다는 명제는 그른 것이다. 그릇된 것을 차별할 수는 있어도 다른 것을 차별할 수는 없다.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과 다른 이들을 차별하면서 갑질하는

모습이 역겨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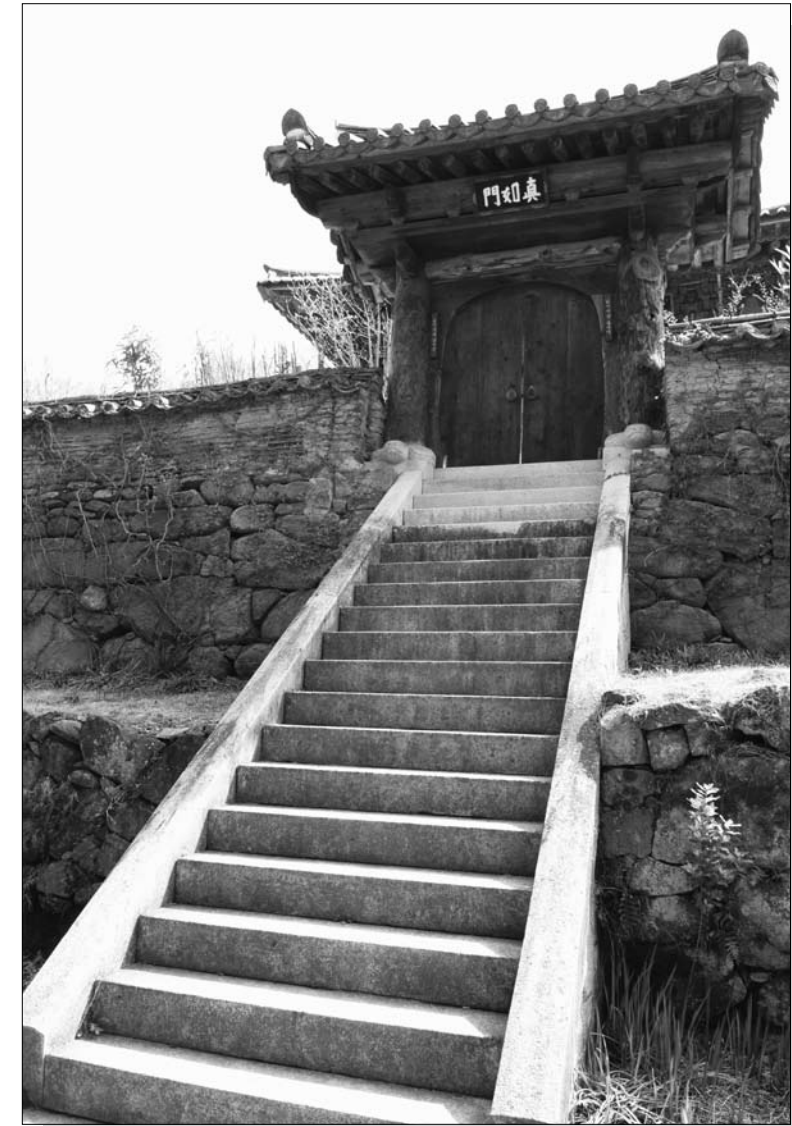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 인물이 있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슈퍼볼 게임에서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하인즈 워드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명언을 남겼다.

“Love has no color.”

사랑에는 색깔이 없다는 뜻이다. 피부색이 다르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다문화 가정을 차별했던 우리 사회를 부끄럽게 만든 일성이었다. 마티의 친구들이 깨달은 것도 바로 색깔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었다. 그림자는 차이와 차별을 극복하고 친구의 관계를 회복시켜준 고마운 존재였다. 하인즈 워드가 출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차별의 상징적 단어였던 ‘살색’이란 말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이다.

어찌 보면 차이는 오히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고마운 존재이다. 나의 정체성은 차이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는 ‘너’와의 차이에서 드러나며, ‘흰 색’은 ‘검은 색’과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는 나의 존재 이유이자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차별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언제부턴가 TV에 출연한 사람들이 ‘틀리다’라고 말하면 ‘다르다’고 고쳐서 자막을 넣어준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마티들이 있다. 이들을 지켜줄 그림자와 달님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다름 아닌 나의 존재의 이유이자 근거이기 때문이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 사회, 아니 나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회, 우리가 꿈꾸는 세계도 이런 곳이 아닐까?



선방스님들께서 정진하시는 곳인 설법전과 수선사로 들어가는 진여문입니다.

송광사에서 16국사 스님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계단의 갯수는 총 16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진 속 계단을 세어보면 18개입니다. 송광사에 18국사 스님들이 배출된다는 전설을 현실화하고 싶은 바람으로 2개를 더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행복은 한 템포 느리게 찾아온다

중현 中玄 | 월간 『송광사』 편집장

어제부터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대세라 전부다 폰으로 찍었던 것들이다. 찍을 당시만 해도 잘 보관해야겠다 싶어서 컴퓨터에 소중하게 보관해 놓은 것들이었다. 그렇지만 그 뒤로는 도통 들여다보지 않은 사진들이 대부분이다. 스마트폰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부터 마치 숨 쉬는 것만큼이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찍는 행위만으로 충분히 이 풍경을, 이 사람을,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인간적인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 버리는 모양이다. 그래서 찍고 난 후의 일들에는 마음이 웬만해서는 가질 않는다.

정리하다보니 보관할 것 보다 버릴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아무래도 찍을 때 손가락 움직이는 정도의 수고만 보탸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마음을 사로잡는 사진들이 간간히 나온다.

예를 들면 어느 해 가을, 단풍이 절정이던 황련사 앞 시골길을 보리와 산책하다 찍은 사진이 그런 것이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날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그 때의 느낌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인다.

깊어가는 가을의 풍광은 극도로 아름다웠다. 토요일 아침, 사랑하는 보리와 함께 나는 할 일 없이 시골길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마음 속엔 이렇다 할 근심도, 걱정도, 고민꺼리도 없었다. 보리와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을의 아침을 즐기고 있을 뿐이었다.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니 햇살까지 아름다웠었다.

한참이 지난 지금, 그 순간 속에 다시 들어가 보니 나는 그 때 참 행복했었다. 그 때는 ‘아! 행복하다.’는 느낌이 없었다. 아마도 행복을 느낄 마음의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행복으로 가득 차있었기 때문이리라. 그 때는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행복을 이제야 느낀다.

행복하다는 느낌은 이미 지나가버린 그 시간 속으로 우연히 다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엄습해 오기 마련이다. 언제나 행복은 한 템포 느리게 찾아온다. 행복은 슬픔, 불행, 고통 같은 것들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지극히 상대적이고 분별적

인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비교할 그 무엇을 필요로 한다.

행복은 과거 혹은 미래를 친구삼아 살아간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으로 느껴지는 행복은 단지 행복하고 싶은 나의 바람이 지나쳐서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이다. 까득까득 까르르하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아이가 그 순간 행복을 자각하고 있을까? 아이는 그저 즐거울 뿐이다.

행복은 학습되는 것이다. 이제 갓 사회에 뛰어든 사회초년생들은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그 때가 행복했었다고 되뇌인다. 그런가하면 학창시절에는 학교만 졸업하면 세상 일이 다 내 맘대로 될 것 같은 희망에 부풀어 오른다. 사람들은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상상하며 행복에 겨워한다. 환상에 불과한 미래의 행복을 현재의 고통에 대한 진통제 삼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일이 다 그렇듯,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지난 사진을 보고 추억에 빠져서 현재를 망각한다면 그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일 뿐이다. 고단한 현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 꾸역꾸역 과거의 추억으로만 빠져든다면, 그것은 도피이다. 과거는 악몽처럼 짓누르고 미래는 일말의 희망조차 허용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행복은 일그러지고 추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사진 한 장이 선물하는 뒤늦은 행복은 살아가는 힘이 된다. 욕망과 집착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는 삶일지라도, 행복

이 순간순간 별처럼 반짝이기에 다시 한번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

心不妄取過去法하고 亦不貪着未來事하며
不於現在有所住하면 了達三世悉空寂하리라
마음으로 과거의 일을 취하지 말고
또한 미래의 일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의 일에도 머물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적함을 깨달으리라.
- 화엄경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보리는 내가 온 마음을 바쳐 사랑했던 유일한 존재였다. 가끔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면 보리를 생각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리를 사랑하던 당시의 순수했던 내 마음을 그리워한다.

추억에서 빠져 나와 자신을 돌아본다. 역설적이게도 생동하는 머물지 않음을 어렵듯이 느낀다. 사진 한 장의 인연으로 화엄경의 한 구절을 곰곰이 되새기는 밤이다.



중현스님
1998년 송광사에서 법일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송광사 강원을 졸업하고 제방에서 정진.
전 송광사 총무국장.
월간 『송광사』 편집장.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송광사보에 ‘동화가 있는 서재’를 연재하고 있는 이일야(전북불교대학 연구처장) 씨가 불교인문학 관련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를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흔히 불교에 대해 오해하거나 착각, 혼동할 수 있는 20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저자는 “불교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생생하게 녹아 있다”며 “좀 더 쉽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의 소소한 경험을 활용해 불교의 세계관을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한다.

책 1부와 2부에선 자아와 무아, 속명과 업, 윤회와 해탈 등으로 대조되는 개념을 설명하고 3부에선 주제를 넓혀 이성과 신앙, 닫힌 종교와 열린 종교 등을 다뤘다.

이일야 저 / 12,000원 / 담앤북스

한국의 차 문화 천년 7



〈한국의 차 문화 천년 7〉은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약 1100여 년 동안 스님들이 기록한 차 문화 관련 문헌을 집대성한 책이다.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조창록 · 이규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원이 옮긴 이 책은 〈한국의 차 문화 천년〉 시리즈 가운데 일곱 번째 권이다.

그 동안 차 문화를 향유한 스님들이 남긴 시문과 행적을 발굴하기 위해 조선후

기(1, 2권), 삼국시대 · 고려(3권), 조선초기(4권), 조선중기(5권), 근 · 현대(6권)까지의 시대별 고찰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7권에서 ‘승려의 차 문화’를 따로 엮었다.

우리나라의 차 문화는 시작부터 불교의 스님들과 함께 했다. 이 책에 수록된 인물은 신라 고승 교각스님으로부터 고려 의천스님, 조선 기화 · 보우 · 휴정 · 약탄 · 각안스님, 근대 정호스님 등 모두 57명에 이른다.

역자들은 “차 문화를 향유한 스님들이 남긴 시문과 행적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조선 후기, 삼국시대, 고려, 조선초 · 중기, 근현대까지 시대별 고찰을 마무리해 마지막에 스님들의 차 문화를 엮어 내게 됐다”고 밝혔다.

송재소 · 조창록 · 이규필 옮김 / 18,000원 / 돌베개

잠시라도 내려놓아라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자신을 옥죄는 이 시기. 〈잠시라도 내려놓으라〉는 말이 죽비처럼 정수리를 때린다.

올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로 바쁜 당신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 보자. “물을 끓이던 도중 장작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게 됐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저자는 대부분 가장 빠른 시간에 장작을 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물을 조금 따라 내려. 한 발 물러서면 대개는 쉬워지며, 삶이 지금보다 가벼워질 것이다”라고 해법을 제시한다.

〈잠시라도 내려 놓으라〉저자는 중국 푸단대학 휘위밍 교수다. 선종 스님들의 화두와 한시를 접목해 “생각으로 가득 찬 현대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일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움직이는 것은 깃발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등 짧은 문장이 주는 긴 여운을 가진 글로 엮인 책이다.

휘위밍 지음 / 나진희 옮김 / 13,800원 / 글담출판사

영산전 · 약사전 개금불사 인연공덕 지으소서



삼보에 귀의하옵고,

보물 302호 약사전 약사여래부처님, 보물 303호 영산전 석가모니 부처님 개금불사 인연을 모연합니다. 부처님을 새롭게 장엄하는 개금불사는 마음을 새롭게 청정하게 맑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수승한 인연을 맺는 불사입니다.

무량공덕이 높아지는 개금불사에 동참하시어 불자님 가정에 모든 마장이 소멸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수희동참 바랍니다.

Ⅰ대시주 | 2,000만원

Ⅰ가족동참 | 100만원

Ⅰ개인동참 | 30만원

Ⅰ회향일 | 2015년 11월 29일 (음.10.18) 일요일(금강산림법회 회향일)

Ⅰ동참계좌 | 우 체 국 501676-01-002376 (예금주 : 송광사)

국민은행 783601-01-445391 (예금주 : 송광사)

Ⅰ문의 | 송광사 기도접수처 061-755-5306 팩스 061-755-5309

임란 이후 송광사 중창불사 가마터 확인

— 조계산 인월암 인근에서 흑토기와 전도요지 시굴조사

2015년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순천 송광사 흑토기와 전도요지 시굴조사가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의 주도로 조계산 인월암 인근의 발굴터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조사단에는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이수경, 이지훈, 송성근, 김진경 연구원 등 총5명이 참가했다.

이번 시굴조사 유적인 기와요지(기념물 제31호, 1977년 10월 20일 지정)는 송광사 화엄전 남쪽 350여 미터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이 기와 가마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송광사가 사찰의 품격을 재정비하면서 사찰 건축에 사용하기 위해 운영한 가마 가운데 한 곳이다. 보통 기와 가마가 짧고 둥근데 비해 이 가마는 대형 가마로 매우 큰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마 구조가 잘 보존되어 내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 당시의 가마 구조와 사용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송광사 주위에는 이곳 이외에도 화엄전 남동 550여m의 불일폭포 주변과 화엄전 남동 1,500여m의 등산로 옆 건물터 주변에서도 조선 후기 기와 가마터가 확인되고 있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송광사 중창 불사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송광사 기록에 의하면 조선 전기에는 1488년(세종 30)과 1490년(성종 21) 2회의 제와기록이 있으나 병자호란 이후에는 1639년(인조 17)부터 1926년까지 18회의 제작 기록이 남아 있어 이 시기 왕성하였던 중창 불사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18세기대에는 10회의 제작 기록이 남아 있어 이때 가장 많은 중수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01. 1호 가마 조사 중 전경
02. 1호 가마 번조실 소결 흔적
03, 04. 1호, 2호 가마 출토 기와류



가마터와 인접하여 중창불사 등에 사용할 경판과 기와 제작을 담당하였던 판와암(현재 인월암)이 위치하고 있어 가마 운영과 제작 과정 등을 연구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2기의 가마는 발견 당시에는 가마 구조가 잘 보존되어 내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훼손되어, 형태만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 결과 가마는 현재 노출된 2기 이외에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2기의 가마는 평면상 요전부와 화구부, 번조실이 잘 노출되어 있다. 1호 가마는 천장부도 일부 잔존하고 있는 등 상태가 양호하며, 가마 외부의 배수시설도 확인되었다. 2호 가마는 번조실에 트렌치를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가마로 추정할 수 있는 소결 등의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굴 조사 결과 기와 가마의 전체적인 규모가 확인되었으며, 출토 기와편으로 볼 때 조선 후기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적은 훼손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수립하고 송광사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기와 가마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01, 02. 시굴조사 보고회
03. 2호 가마 번조실 중 전경

◎ 2015년 2월 행사

01. 어린이법회 수련회

송광사 어린이법회는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양일간 청암사, 해인사, 무주스키장, 성관사를 방문했다. 어린이들은 송광사가 아닌 다른 사찰에서 하룻밤 묵으며 공양도 하고 예불도 드려보니 색달랐다고 다음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02. 성보박물관 유물이전

2월 5일~6일 이틀간에 걸쳐 현재 수장고에 있는 유물을 신축박물관 수장고로 이전했다.

03. 송광사 버스 교체, 심우승 거사 기증

2월 6일 주지 무상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모여 새로 마련한 송광사 버스 무사고 기원제와 시승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기존의 버스는

노후화로 인한 위험성이 있어 교체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버스는 심우승(사장, (주)송도종합건설, 사진) 거사님이 기증했다.

04. 송광사 관내학교 졸업생 장학금 수여

2월 17일 송광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송광사 인근 8개 학교의 졸업식이 있었다. 송광사에서는 평소 품행이 바르고 이타행을 실천하는 등 모범을 보인 졸업생 13명에 대하여 총 170만원에 이르는 장학금과 선행상을 수여하였다.

05. 설날맞이 종무원 귀경행사

2월 18일 관음전에서 설날맞이 종무원 귀경행사를 가졌다. 주지 무상스님은 열심히 일하는 종무원들 덕분에 송광사도 있는 것이라며 알찬 설날 연휴를 보내고 다시 본업에 충실해주길 당부했다.

06. 정초 산림기도

2월 21일(음 1.3)부터 동안거 해제일인 3월 5일 9음 1.14)까지 보름간 예정으로 송광사 응진전 및 지장전에서 정초기도를 갖는다.

◎ 3월 행사

07. 조계총림 임회

3월 3일, 동안거 해제를 앞두고 임회 위원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구의 중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임회를 목우현에서 개최한다.

08. 율원·강원 졸업식

3월 4일, 율원 15회, 강원 25회 졸업식을 정혜사 큰 방에서 봉행한다.

09. 동안거 해제

3월 6일 오전 8시, 을미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사자루에서 방장 스님의 해제법문과 함께 해제법요식을 봉행한다.

10. 제1기 불일불교대학 졸업식

3월 27일 오후 1시, 대웅보전에서 제1기 불일불교대학 졸업식이 봉행된다.

매월 음력 초하루 순천지역 순환버스 운행

〈운행시간표〉

조은프라자 맞은 편 주유소 앞 (8:30) → 순천역 (8:35) → 공용터미널 (8:40) → 순천대 (8:50) → 선평삼거리 (9:00) → 송광사 (9:35)

※법회 후 버스 출발 시간 : 다송원 앞 오후 1:00

대중공양 안내

송광사에서는 대중공양 물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물품은 사중스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 안길 100

문의 : 원주실 061)755-5301, 010-9440-5301

※ 정정합니다.

지난 2월호 37쪽의 '정혜사 - 수산스님'을 '용인 서봉사 - 광우스님'으로 정정합니다.





기도성취 영험도량 조계총림 염불원 **감로암**
부처님 가피로 장원급제한 원감국사 창건도량

400년전 고불古佛 모신 천년도량에서 인연공덕 지으세요!

감로암 기도 동참안내

천년기도도량 감로암에서는 1년 365일 묵탁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감로암 기도정진에 동참하시어 입시, 수험, 승진, 건강발원 정진으로 소원성취하시고 좋은 인연공덕 지으시기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매일 매일 행복과 희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정기기도 법회

신중기도(매월 음력 초하루~초3일)
초이레기도(매월 음력 초7일)
아미타재일기도(매월 음력 15일)
지장재일기도(매월 음력 18일)
관음재일기도(매월 음력 24일)

동참내용 | 초하루기도, 백일기도, 1년기도, 천일기도, 인등연등기도, 생일축원기도, 아미타재일기도
기도정진 | 새벽, 사시, 오후 2시, 저녁 <천수경> 독송 후 <금강경> 독송(1일 4회)
동참계좌 | 우체국 501676-02-041153(송광사 감로암)
동참문의 | 061-755-7705(감로암 종무소)



부처님 가피로 장원급제한 원감국사 창건 도량

조계총림 송광사 감로암은 고려 때 장원급제한 제6세 원감국사께서 감로의 법을 펼치기위해 창건한 암자입니다. 근래에는 조계총림염불원으로 지정되어, 하루 4회씩 일념으로 기도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량수전 아미타불좌상(400년 古佛)

감로암 무량수전 아미타부처님은 약 400년전, 당시 조선 최고의 불모佛母 응원스님이 직접 조성한 목조불상입니다. 불모 응원스님은 1628년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을 제작하였으며, 1624년 송광사 응진당의 목조삼세불좌상과 함께 감로암 목조아미타불좌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동안 송광사 해청당에 봉안되었다가 지난해 염불원으로 지정된 감로암 무량수전에 봉안됐습니다.



승보종찰 송광사 기도동참안내

매월 기도

기도명	기도(축원)기간	동참금액
초하루기도	매월 (음력) 1일	3만원
약사기도	매월(음력) 8일~10일	3만원
관음기도	매월 (음력) 24일	1만원

상시 기도

기도종류	시간	동참금
특별축원	오전 10시 20분	10만원
천일기도	새벽4시 오전10시 오후1시 저녁5시(동절기), 6시(하절기) 중 1회 축원	100만원
1년기도		30만원
백일기도		10만원
7일기도		7만원
삼일기도	오전 10시	3만원
생일기도		1만원
하루기도		1만원

봉축(초파일)등 동참

전각명	동참금액
응진전	대등(30만원), 소등(20만원)
산신각	소등 (10만원)
승보전	대등(20만원), 소등(10만원)
지장전	대등(20만원), 소등(10만원), 영가등(10만원)
초파일 대등	100만원
초파일 마당등	5만원

인등 동참

관음전 인등	1인 1년등	10만원
관음전 인등은 수시접수 가능하며 소등 연락이 없을 시에는 자동연장되오니 꼭 연락바랍니다.		

송광사 기도접수처 061-755-5306 우체국 501676-01-000520 (예금주 : 송광사)



스님, 계십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 •

2박 3일 동안 여덟 분의 스님을 만납니다.
괴로움이라 부를 것도 없는
그저, 쉬는 도리를 경험합니다.
마음이 쉬면 불러줄 「이름」도 없습니다.



프. 로. 그. 램

3.27(금) - 29(일) 2박 3일

송광사 장엄예불, 차담, 큰스님과 대화, 암자 한바퀴,
나를 깨우는 108배, 참선, 스님과 선체조, 이야기 책 만들기

- **참가비** : 성인(15만 원), 중고생(10만 원)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개인물통
※행사당일 16:00까지 도착합니다. - 매표소 지나 숲길 따라 올라갑니다.
다송원 옆 다리건너 왼편 산시체험관입니다.
- **문의** : 061-755-5350, 010-8830-1921
- **예약** : songgwangsa.org

내가 모두 군더더기 말한 법

작가
이정범

신학문의 길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셋째아들을 한꺼번에 잃고 난 이병억은 실어중에 걸린 듯 밤새 말이 없었다. 온 가족이 겹초상을 치르느라 그날 밤을 꼬박 지새우고 이튿날 오전이 되었다. 벌써 이찬형이 숨진 지 20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바깥일로 출타했던 이찬형의 숙부가 동구洞口에 들어선 뒤에야 소식을 듣고는 울며불며 달려왔다. 그는 늙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어린 조카의 죽음을 더욱 안타까워했다. 벌써 오래전부터 신동이란 소문이 자자했던 조카의 앞날을 크게 기대했으며 자랑스레 여겼으니 그 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님, 우리 찬형이가 왜 죽었다는 겁니까? 정말 죽었다면 말입니까? 내래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진정시켰으나 그는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조카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며 울부짖었다. 결국 그의 성화에 못 이겨 가족들은 입관도 못한 채 이불에 돌돌 말아 방구석에 밀어놓았던 찬형의 시신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죽은 사람 같지가 않았다. 몸에 약간의 온기가 남았고 맥을 짚어보니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전날처럼 부름을 받고 혈레벌떡 뛰어 들어온 박 의원이 이

런 일은 처음 겪는다며 응급조치를 한 결과 찬형은 마침내 의식을 찾을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 제2의 인생이 시작된 셈이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효봉 스님은 이때의 일을 제자들에게 털어놓고는 했다.

“내래 고저 그때 할아버지의 목숨을 대신 받고 살아났댔어.”

이 말처럼 손자의 목숨을 자신의 천수天壽와 바꾼 할아버지는 물론 그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겠다고며 부득부득 이불을 풀어헤친 숙부는 훗날의 효봉 대선사를 있게 한 생명의 은인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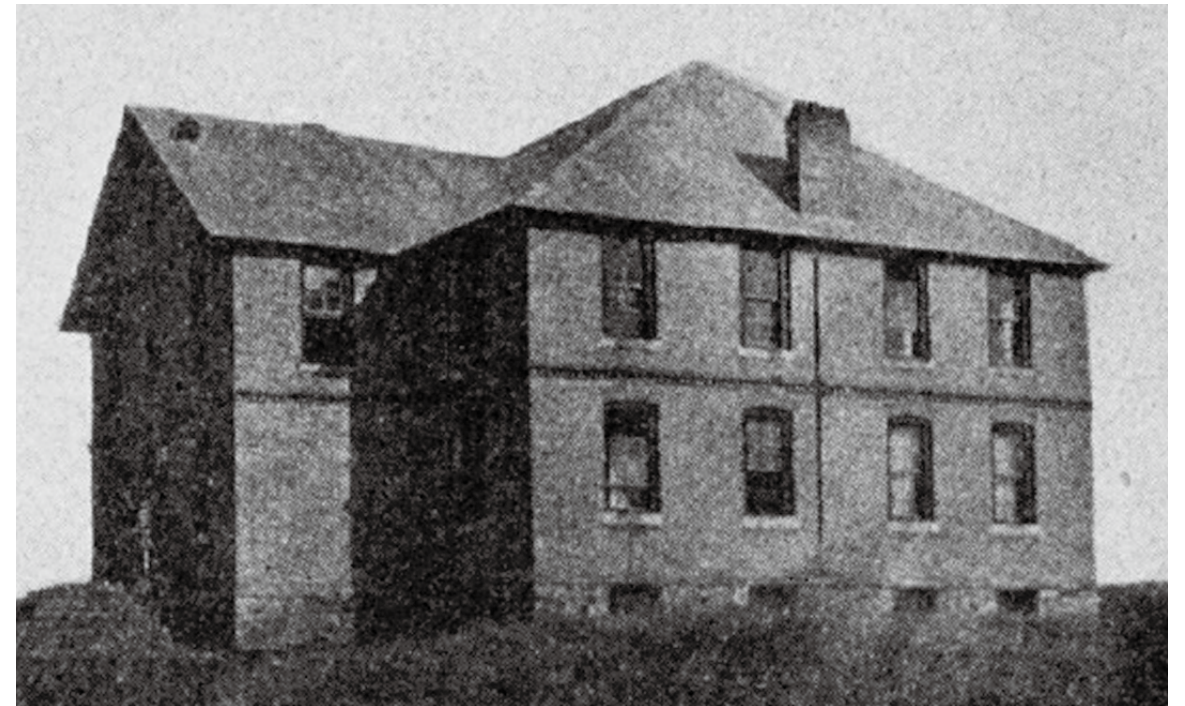
혈연으로는 조부이며 인생으로는 대선배이고 학문으로는 스승을 잃은 찬형은 한동안 실의에 찬 나날을 보냈다. 사는 게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던 청소년기였다. 그러나 생전의 할아버지가 일깨워준 것처럼 더욱 열심히 학문을 익혀 크게 출세해야겠다는 다짐이 더욱 굳어졌다. 그것이 할아버지에 대한 도리이자 보은報恩의 길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사실 이찬형이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한학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당시 조선 사회가 외래 문물의 개방 앞에 속수무책인 데다 특히 이찬형의 나이 여섯 살 무렵인 1894년의 갑오경장에 따라 과거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찬형의 할아버지 이창근은 손자의 앞날에 한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가르친 셈이었다.

갑오경장과 같은 개혁 정책이 시행되자 뿌리 깊은 유학자 가문을 제외 한 대부분의 계층에서는 근대 문물제도를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평안도의 부호로 손꼽히던 이찬형 집안에서도 출선수범하여 가노들을 해방시키는 등 갑오경장의 취지를 모범적으로 따랐다. 이듬해인 1895년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단발령이 내려지자 이창근이 여러 자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말했다.

“나라에서 단발령을 내려 스나이(남자)들의 상투를 자르라 했으니 어찌갔네? 내래 오늘 당장 상투를 자를 것이니 너희도 그리 하라우.”

이 명에 따라 찬형 집안의 사내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신식 의복을 입었다. 이 단발령으로 전국의 유생들이 자기 목을 내



이찬형이 평양고보에 입학하기 전 2년 동안 다녔던 격물학당(광성보통학교) 전경.

놓을지언정 상투는 자르지 못하겠다고 울고불고 반발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진보적인 선택이었다. 반면 과거제도가 없어졌음에도 이창근이 굳이 손자에게 한학을 직접 가르친 것은 수백 년 동안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차별받고 소외당했던 아픈 기억 때문이었다.

갑오경장에 이어 1895년의 을미개혁, 명성왕후 시해사건인 을미사변, 을미의병과 아관파천俄館播遷 등의 역사적 사건들을 숨 가쁘게 겪고 난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는 등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큰 물줄기는 되돌릴 수가 없었다. 늙은 나라 조선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현대화된 데다 메이지 유신으로 무장한 일본의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다. 황제 고종은 조선을 근대화시키는 동시에 외세로부터 독립시키는 두 가지 과제를 떠안았으나 그를 둘러싼 주변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열세 살 때 할아버지를 잃고 난 이찬형은 비록 한학이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사서삼경 등 유교 경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는 1901년에 평양감사가 주최한 백일장에 나가 장원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 일은 그가 수준 이상의 한학 실력을 가졌으며 글 솜씨 또한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그 자신은 물론 부모들조차 세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어서 비록 조금 늦은 나이이긴 했으나 신학문을 배우기로 했다. 1900년대로 접어들면서 각지에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등이 설립되었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들 학교에 입학해 신식 교육을 받게 되었다.

1903년 이른 봄, 평양에 다녀온 이병억이 셋째아들 찬형을 앉혀놓고 말했다.

“요즘 피양(평양)에 신식 학교들이 많이 생겼다. 네래 기린 학교에 들어가 신학문을 배우는 게 좋지 않겠네?”

찬형이 물었다.

“기린 신식 학교에선 무얼 가르칩니까?”

“이걸 보라우.”

이병억은 평양 광성^{光成}보통학교에서 가져온 입학 안내문을 찬형에게 내주었다. 거기에는 광성보통학교의 설립 내력과 수업 과정 및 연한 등이 적혀 있었다. 수업 과정은 독서와 습자는 기본이고 외국어, 지리, 기술 등을 가르친다고 했다.

결국 찬형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평양에 하숙집을 구하고 광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보통학교는 지금의 초등교육기관에 해당하며 그 위로 고등보통학교가 있었다. 이찬형의 경우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연령이었으나 당시는 신식 학교들이 처음 설립되는 단계였기에 기초 과정부터 거쳐야만 했다. 다만 학교 측에서는 이찬형이 사서삼경 등 한학을 터득한 데다 백일장에서 장원까지 했던 실력을 감안해 처음부터 상급반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가 다녔던 광성보통학교는 1894년 서양의 홀(W. J. Hall) 선교사가 기독교 교육을 위해 사숙^{私塾} 형태로 문을 연 이래 1903년 5월에는 문요한(J. Z. Moore) 선교사가 홀의 유지를 이어받아 평양성 서문 밖 가맛골에 2

층 양옥으로 세운 사립학교였다. 이찬형이 이 학교를 다닐 때는 격물학당^{格物學堂}으로 불리다 1918년 이후 광성고등보통학교로 개명되었다.

서양인 선교사가 세운 사립학교인 만큼 광성보통학교 학생들은 학과의 한 과정으로 성경과 찬송가 등을 배우고 매주 정기적인 신앙 활동을 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으로부터 줄곧 한학과 유교적인 예법을 배우고 익혀왔던 이찬형으로서는 주기도문을 외을 때나 성경 구절을 읽고, 문요한 교장으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혼란스러워했다.

언젠가 문요한 교장의 설교를 듣던 이찬형은 큰 의문에 휩싸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일가친척들에게도 이 말을 꼭 전하고 명절이든 제사 때든 조상의 위패 앞에 절을 해선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며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듣던 찬형은 문득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할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오면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여들고 정성스레 음식을 차려 절을 올렸는데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인가.

찬형은 교장의 설교가 끝난 뒤 조심스럽게 여쭙었다.

“교장 선생님!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며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 주라 하셨다고 배웠습네다. 기린데 왜 자기 조상에게는 절을 하디 말아야 하는지 리해가 안됩니다.”

그때 문요한 교장이 빙긋 웃고는 답했다.

“음, 여러분들도 찬형 학생처럼 그게 궁금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두 들어 주시는데 왜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날 찬형은 교장의 반문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에게 한학을 가르쳐주시고 모든 사랑을 쏟아주셨으며 끝내 생명마저 남겨주신 할아버지가 그리고 감사할 따름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항상 처음처럼 일하는
송도건설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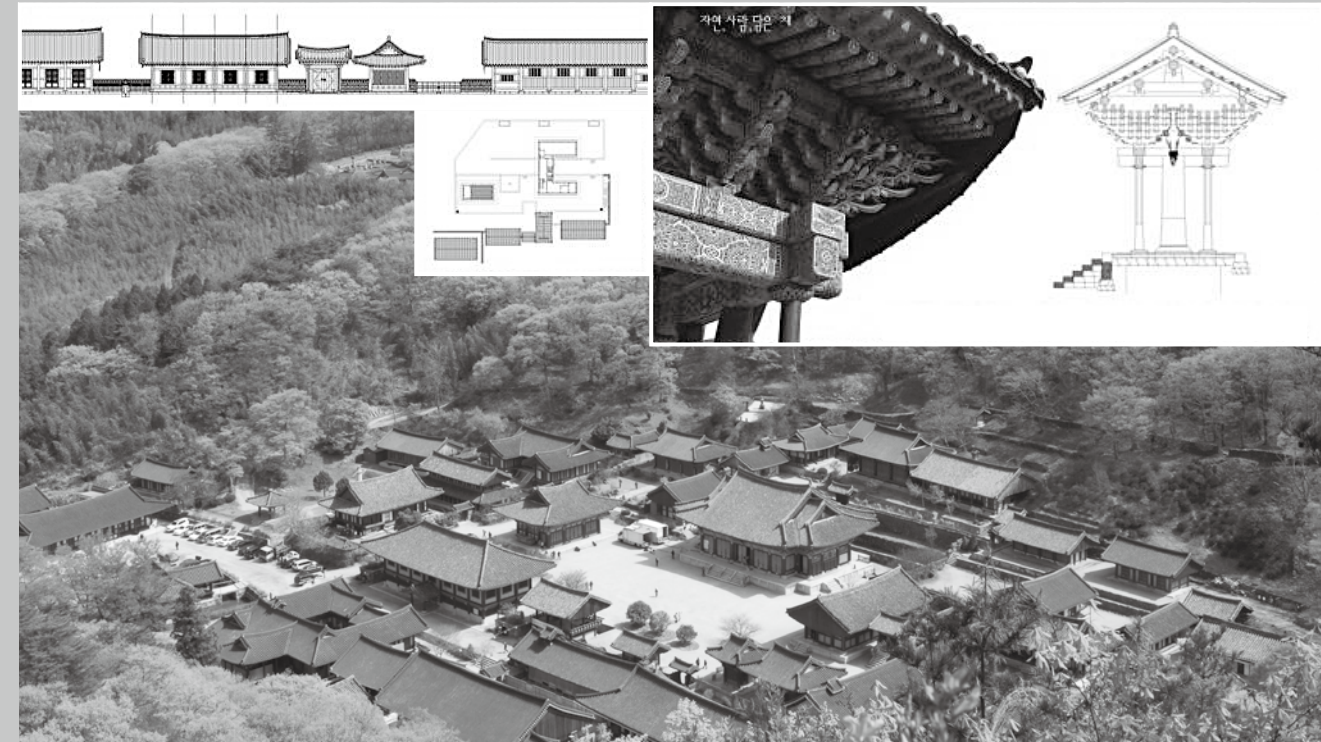
宋 都 建 設 (株)

Song Do Construction Co., LTD.

토건 | 조경 | 문화재보수단청

전남 순천시 서면 못나들길 31

TEL 061. 755. 7623



(주)삼진건축사무소

문화재 실측설계 / 문화재 감리 / 현대건축

대표이사 이 봉 수

Tel. 061) 371-1108 Fax. 061) 373-8891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26번지 samjinac@empas.com



부강전력 (주)

BU KANG ELECTRIC POWER



대표이사
김 옥 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시장길 3-1

Tel. 061) 375-7030 Fax. 061) 372-1366 H.P. 010-4803-3292

qnrkdwjsfur@hanmail.net

송광사 불사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산문불사 동참자 명단 (2015.1.21 ~ 2.20)

동참시주 : 강인숙	서까래 : 김남수	김종고	이철규	사자상 : 강승연	윤지유	주 촛 돌 : 김성은
	김미도리	송창순	이희영	김기록	윤태정	송기창
	김세미	이양수		김시연		익명
	김용순	이종성		김홍기		익명

동참계좌 국민은행 : 783601-01-481663 (예금주: 송광사) 우체국 : 501676-01-002408 (예금주: 송광사)

16국사 진영 봉안 불사 동참자 명단 (2015.1.21 ~ 2.20)

강미화	김성훈	라두언	박종일	안정호	이인성	최영일	대시주 : 강승연	윤지유
공무애성영가	김승지	라석규	박현아	이성민	이인영	피완섭	김기록	윤태정
기정재	김승훈	라우승	배종훈	이성현	정구순	하성욱영가	김시연	
김선미	김완규	박범수	백난심	이슬하	최경인	황윤구	김홍기	

동참계좌 국민은행 : 783601-01-464262 (예금주: 송광사) 우체국 : 501676-01-002571 (예금주: 송광사)

관음전 신규 인등회원 명단 (2015.1.21 ~ 2.20)

강은채 2159	김석권 2821	김희원 1937	성영운 1133	이명화 1282	정라라 171	한대덕 2156
강인구 30	김성수 43	남현심 2665	성현정 1140	이상은 38	정언수 35	한미영 44
강인희 31	김시연 45	박나운 2317	송용역 47	이서정 1010	조경은 1283	한수지 2160
강재섭 28	김연주 1082	박민정 1048	송필임 29	이소윤 1011	조문수 1281	한승호 1047
강주수 2699	김중하 2917	박승역 2889	안효제 2255	이소정 2207	조은경 33	한재경 2157
고은아 2162	김중훈 2916	박여래 1307	양인서 39	이숙 2161	조은주 32	한재성 2158
김명재 46	김주만 173	박영미 3051	양행열 37	이영일 2208	조혜진 1284	허성철 1729
김민수 1182	김주오 2543	박한철 49	윤성우 2700	이준호 1291	최성규 1936	허성혁 1730
김범준 1854	김한솔 175	백민희 36	윤영준 48	이채운 1009	최유지 1935	
김복주 2486	김한울 176	서해나 2127	이경미 174	정갑도 170	최은혜 1293	

인등접수 송광사 기도접수처 061-755-5306 우체국 : 501676-01-000520 (예금주: 송광사)

월간 『송광사』 정기구독 안내

- 2014년 1월부터 2년 정기구독 회원, 3년 정기구독 회원 및 평생 구독 회원 제도는 **1년 정기구독회원(30,000원)**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13년 12월 이전에 등록하신 회원님들에게는 2014년 12월까지 사보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기존 평생구독회원님께서는 2015년 12월호까지 사보를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계속 구독을 원하는 회원님께서서는 월간 『송광사』 편집실로 연락바랍니다.

2015년 월간 『송광사』 정기구독 회원 명단 (2015.1.21 ~ 2.20)

송은진 이익수 정춘희 조미숙 최태숙 해명스님

문의 월간 『송광사』 편집실 061-755-5328 (사보담당) 우체국 : 501676-01-001432 (예금주: 송광사)

구독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_ www.songgwangsa.org
블 로 그_ <http://blog.naver.com/songgwang01>
페이스북_ [Facebook.com/SongGwangsa](https://www.facebook.com/SongGwangsa)



한국불교의 상징,
조계산에 산문^{山門}을 건립합니다

전통과 역사가 가득한 조계산 자락에
“한국 불교를 상징하는 산문”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 산문 건립불사는 밖으로는 1700여년을
이어 온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고
향후 수 천년을 이어 갈 조계종 불교의 근본을
이루기 위한 일이며, 안으로는
조계산을 지키고 한국불교의 기운을
새롭게 정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불사 동참안내

동참시주 5만원 이상

계좌 국민은행 783601-01-481663 (예금주:송광사)
우체국 501676-01-002408 (예금주:송광사)

회향일 2015년 12월경

회향일에 산문 준공식을 여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수 기도접수처 061) 755-5306

구 분	구좌당		구 분	구좌당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주춧돌	8	2,000,000	돌기둥	8	5,000,000
대들보	8	10,000,000	나무기둥	8	5,000,000
서까래	350	300,000	현판(전면)	1	30,000,000
도 리	74	1,000,000	현판(후면)	1	20,000,000

●시주자는 현판에 이름을 새겨 부착할 예정입니다.